

## News

### 채권시장안정펀드 6월부터 A+등급 여전채도 매입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가 'AA- 등급' 이상에서 'A+ 등급' 이상으로 확대  
또 6월 말부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대상에 'A- 등급' 이상의 여전채가 포함

### '대출 과속' 제동 못 걸고 속만 태우고 있는 은행권

국민일보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대출 과속'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독려하는 정부 방침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  
신한 · KB · 하나 ·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3월 말 현재 BIS 기준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5.4%...2015년 12월(14.9%) 이후 4년3개월 만에 최저치

### 3월 기술금융 대출 '역대 최대' 찍었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이 기술금융에 적극 나서면서 기술금융 대출 50만건 돌파...3월에만 2만건 이상 늘어...  
국책 은행인 기업은행이 4조 5825억원 늘며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낸 가운데, 시중은행 중에선 국민은행이 2조6743억원 늘며 가장 높은 실적...

### 은행원, 임금피크제 바뀌나... '65세' 정년 도마위

머니S

이달부터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금융권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것...정년보장형의 임금피크제도 60세로 늦추는 안건도 내걸어...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20대 국회 문턱 못넘어

머니투데이

19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을 발의했던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당선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

### 강남 부동산도 판다... 현금 확보 나선 금융회사

이데일리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4일 강남사옥 매각을 위한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6월 초에 진행될 예정  
한화생명도 분당, 인천, 광복동 사옥에 대한 매각을 진행...메리츠화재도 강원도 강릉에 있는 연수원 부지에 대한 매각 작업을 진행 중

### 삼성·키움증권 '동학개미' 효과

뉴시스

삼성증권의 위탁자예수금은 단숨에 7조원을 넘어섰고, 키움증권은 3개월 사이에 예수금 규모가 3조원 이상 불어나...  
국내 증권사 1분기 수탁수수료 수입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의 수탁수수료는 1,225억원과 1,286억원으로 각각 132%, 80% 급증

### 라임펀드 수천억원 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 구속영장

연합뉴스

라임 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수천억원어치 판매한 대신증권 장 모 전 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  
총 2천480억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